

동신대-나주시의회, 지역 문화관광 협력

관계자 50여명 참석 정책 포럼 '나주 관광시대' 토론·질의응답

동신대학교와 나주시의회가 지역 문화관광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와 나주시의회(의장 이상만)는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전남 나주빛가람동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 2층 글로벌 세미나실에서 '문화관광 분야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과 보직교수·교직원, 나주시의회 이상만 의장을 비롯한 나주시의원, 나주시관광과와 문화예술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주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동신대 호텔경영학과 유아호 교수는 '나주 원도심 활력과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나주천 생태물길 코스 야간조명 설치 ▲야간 문화행사 및 공연과 야간 푸드 투어 연계 ▲체류형 한옥마을 수평호텔 조성 ▲질라인, 수륙양면 버스 등 액티비티 관광 상품 개발 ▲근대 역사 문화 활용 관광 개발 등을 제안해 박수를 받았다.

'K-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글로벌 나주'를 위한 동신대 교수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주목 받았다.

김민호 뮤지컬·실용음악학과 교수는 나주 학생 독립 운동을 다룬 연극 '1929'를 나주시와 동신

대, 나주 예총 산하 단체, 지역 청년 예술인이 참여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나주 대표 역사 콘텐츠 발굴, 도시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제고, 원도심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철민 태권도학과 교수는 '태권도로 하나 되는 나주'를 목표로 세계태권도연맹 등급별 대회 나주 유치 제언했다. 세계대회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태권도연맹 212개 가맹국의 태권도 인구를 지역 관광객으로 흡수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임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는 청년(MZ세대)이 찾아오는 나주 글로벌 K-CULTURE 대축제, MZ 예술단체 운영,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남도 청소년 예술단 창립 등을 통해 청년이 살아 숨 쉬는 젊은 나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나주시의회 한형철 의원은 '나주의 역사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지역의 역사와 유적, 문화 자원, 음식, 예술 등을 연계한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대학과 지자체, 의회가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문화관광 콘텐츠, 사회서비스 등 특성화 분야에서 힘을 모아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공약이행 정보공개 '최우수' 등급 매니페스토,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실천 평가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의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에서 총점이 90점 이상인 '최우수 SA'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평가 분야인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최우수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이 중 갖춤성은 공약실천계획서에 설명된 종합적인 내용의 갖춤성과 각 공약별 세부 내용의 구체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민주성은 공약 관리 제도와 주민참여, 홈페이지 콘텐츠의 민주성 확보 여부를 평가한다. 또 투명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공약 정보의 접근성과 명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정선 교육감

이정선 교육감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선4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5대 분야, 66개 공약사업, 101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임기 내 종료되는 공약은 92.42% (61개)이며, 계속 사업은 9.09% (6개), 신규 사업은 74.24% (49개)다.

이번 최우수 평가의 결과는 체계적 공약관리를 통한 높은 이행률과 목표 달성뿐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시민께 약속했던 공약사업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항상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광주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서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소통의 교육감실-공약과 매니페스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교과 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강화한다

독서·토론·글쓰기 수업 활성화 등 다중문해력·인문학적 소양 함양

전남교육청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통해 아이들의 다중문해력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장흥초등학교에서 가진 김대중 교육감의 현장 소통 프로그램인 '대중교통' 자리를 통해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서와 연계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인성교육을 위한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향상과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겠다는 전남교육의 기본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독서·토론·글쓰기 수업 활성화 ▲교과 통합 독서인문 프로젝트 수업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활동 ▲한 학기 한 권 읽기 체계화 ▲나도 작가 프로젝트 ▲독서인문교육 주간 ▲인문학 교실 등을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책으로 여는 아침 운영 ▲학교도서관



김대중(왼쪽 두번째)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3일 장흥초등학교 도서관을 찾아 도서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관 개방 및 교실 학급문고 운영 ▲메타버스 활용 십만독자 팻방 프로그램 운영 ▲독서인문 동아리 활동 등도 적극 지원한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과목 수도 많고, 활동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라며 "전남의 아이들이 독서를 습관화하고 고전 한 권은 꼭 읽어서 4차 산업혁명 사회를 대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호남대, '지식재산 교육' 광주·전남권 운영센터 3년 연속 선정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특허청과 중기부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주관·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광주·전남권 운영센터로 3년 연속 선정됐다.

호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김영현)는 2일 대전지식산업센터 2층에서 열린 키오프미팅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인증식에 참석, 전국 각 지역별 14개 운영센터와 함께 인증서를 수여받는데 이어 프로그램 기획, 교육일정 전달감사 매칭, 교육과정 커리큘럼 등을 협의했다.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역기업, 센터 관련자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스타트업의 강한 IP' 창출 역량 제고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되며, 1회 교육은 6월 8일(목) 호남대 IT스퀘어(17호관) 1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현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스타트업들이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전국 세번째 많아

199개교 달해... 전북 203개교

전국 초등학교 5개교 중 1개교는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전국적으로 500개교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이하 분교 제외)는 1362개교로 집계됐다. 전체 초등학교 6천163개교 가운데 22.1%가 전교생 60명 이하인 학교인 셈이다.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2002년 548개교에서 20년 만에 2.5배로 증가했다. 전체 초등학교 대비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 역시 2002년 10.2%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가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203개교에 달

했다. 그다음은 경북(201개교), 전남(199개교) 순이었다.

반면 대구·세종(각 2개교), 서울 4개교, 대전·울산 7개교, 광주 9개교 등 대부분 광역시엔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소형 초등학교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교생 3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지난해 512개교로,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8.3%를 차지했다. 2002년에는 118개교만 전교생이 30명 이하였지만 20년 사이 4.3배로 늘어났다.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11세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2년 419만2000명에서 지난해 270만1000명으로 35.6%나 급감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